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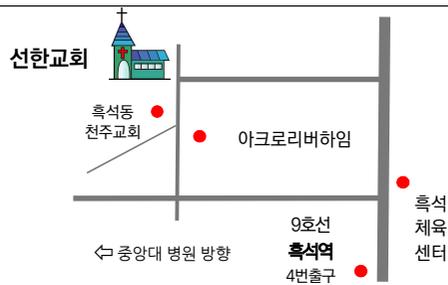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삶의 방식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빌 4:1-7)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8)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찬 양 과 경 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3장 17절 ~ 24절	
설 교	행함으로 사랑하자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류은영 방성자 배미자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전희영 집사	
	말 씬	종말론 2강 (마 24:32-36) 재림전에 일어날 징조들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롬5:12-21) 임춘배 목사		

- | | |
|-------------|---|
| 교회소식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선교사 퇴임예배** 다음주일(15일) 오후예배는 강성규 선교사님의 퇴임예배로 드립니다.
 - 2. 예결산자료제출** 2019년 결산자료(대상: 교육부서 및 자치회, 영수증 포함)와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예산안은 12월 15일(주일)까지, 결산안은 22일(주일)까지 재정부로 (재정부장 : 손영삼 집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예결산위원회모임** 오늘 오후예배 후에 1층 안디옥실에서 예결산위원회 첫 모임이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구영서, 백영미, 손영삼, 손정한, 윤국로, 조계승, 조운익, 편도선, 허정미
 - 4. 인사위원회모임** 인사위원회 모임이 다음주일(15일) 2부예배 후에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윤호중, 박태수, 이광순, 최영석, 심인섭, 조은혜, 류은영, 김현석, 이용재
 - 5. 2020년도 봉사 신청** 2020년도 희망부서 교사 및 봉사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미제출시 현 봉사부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 사무실 / 문의 - 박영근 장로 (인사위원회)
 - 6. 떡 제 공** 오늘은 강병국 배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주셨습니다.

11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2월 1일	관계의 십자가			권현국 목사		
12월 8일	종말론 2강			임춘배 목사		
12월 15일	선교사 퇴임예배			강성규 선교사		
12월 22일	종말론 3강			임춘배 목사		
12월 29일	부서모임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7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늘 동행하는 한주간이 되기를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가 되기를
----------------------	---

[가정예배] 바른 말씀, 바른 설교

찬송 :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통 253장)

본문 : 베드로후서 1장 20~21절

말씀 :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은 어설픈 지식으로 뭘 아는 척 법석을 떨다가 멀쩡한 생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도 수많은 선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열정과 확신은 때론 자기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가진 귀한 신앙을 혼란에 빠뜨려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주먹구구식으로 알고 제멋대로 해석하니 성경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품격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품격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신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된 인간 기록자에게 자기 뜻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선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교훈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물의를 빚은 이단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날에도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등이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계와 역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화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와 신을 부정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과학도 중요하지만 먼저 과학의 원천이고 배후자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질문해야 온당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성경은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해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확실한 설명을 제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만큼 어려운 책은 없습니다. 역사 철학 문화 문학 등 배경지식이 없으면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성경을 알면 곤란합니다.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난해한 문제를 들고 온 사투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개탄하신 예수님의 질책은 필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가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올바른 말씀 해석과 적용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은혜의 말씀

제목

행함으로 사랑하자 (요일 3:17-24)

서론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 거짓 없는 사랑의 증거

- (1)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17)
- (2) 말과 혀로만 이냐? 행함과 진실함이냐?(18)
- (3)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느냐?(21)

본론

2. 교훈

- (1)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자.
- (2)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자.
- (3) 받지만 말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자.

결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박영근 장로
헌 금 위 원	류은영 방성자 배미자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오후예배 기도	전희영 집사	류은영 집사

매일 성경 강독	신실하지 못한 유다의 모습	날짜 : 12월 9일
----------	----------------	-------------

찬양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 / 통일 찬송가 450장)
통독	예레미야 3장
본문 내용	본장은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장이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패망 (B.C.722년)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예레미야는 이에 언약 백성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적인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 하는 유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이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받고 있는 본장은 유다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고 있는 전반부(1-5절) 회개치 않고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중반부(6-10절) 그리고 회개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1-25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p>신실치 못한 유다</p> <p>(1) 1-5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지적함</p> <p>(2) 6-10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남 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해 책망함</p> <p>(3) 11-25절: 선민에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결과로서 비록 그들의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방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성애적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는 듯 묘사함</p> <p>(4)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p>
1	
핵심 단어	3절. 단비가. '소나기, 풍부한 비' 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는 단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 수확의 양을 늘여 주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에덴이 회복되는 그날”
찬양과 기도	세상 권세 멸하시려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장)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은 아담의 낙원 상실 모티브로 장편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을 썼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올리버 크롬웰 정부의 외교 비서관으로 활동했지만 크롬웰의 혁명은 수포로 돌아갔고, 사형을 간신히 면해 은거 중에 기도하며 구술로 「실낙원」을 완성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나의 빛이 어떻게 다하였는가를 생각할 때」(When I consider how my light is spent)라는 시를 써서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함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지 않고 일만 시키시는가?’ 하지만 내 인내가 불평을 가로막고 대답했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나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가벼운 멩예를 잘 참고 견디는 자를 원하신다네. 그것이 그분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네.’” 「실낙원」의 후속작으로 발표한 작품은 「복낙원」(Paradise Regained)입니다. 전편이 아담의 원죄로 낙원을 잃은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했다면, 후편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낙원을 되찾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두 작품의 관계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흡사합니다. 창세기에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낙원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낙원은 어떤 곳인가요?
말씀 나누기	요한계시록 22:1~11
목상포인트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결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천국은 모든 고통과 수고가 그치고 성도들이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세토록 왕 노릇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 주신 모든 계시는 참되고 진실하며, 이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성경 마지막 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12절)라고 약속하시는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라고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장차 성도들은 회복된 에덴에서 어떤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나요?(1~5절)
적용하기	나는 장차 회복될 에덴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나요? 지금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회복될 에덴의 소식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완전한 섭리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동시에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유다의 이상 송배

날짜 : 12월 6일

찬양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
통독	예레미야 7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질책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거짓 종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왜곡된 성전 신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본장의 내용은 성전에서 백성을 꾸짖는 설교로서 유다의 가증스런 예배 행위를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15절)와 일상 생활에서 드러난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중반부(16-28절), 그리고 힌놈 골짜기에서 자행된 최악 된 행위를 다루고 있는 후반부(29-34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유다의 위선적 신앙</p> <p>(1) 1-15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왕정 시대 이전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멸망하였듯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스런 예배와 악행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경고함</p> <p>(2) 16-2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말도록 명령하심</p> <p>(3) 21-34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청종임을 밝힘</p> <p>(4)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참 예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p>
핵심 단어	3절. 바르게. '홀륭하다, 기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유다의 살길

날짜 : 12월 10일

찬양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가 237장 / 통일 찬송가 226장)
통독	예레미야 4장
본문 내용	본장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1-3장에서 암시되어 오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주 극적으로 공포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참된 개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전반부(1-4절)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중반부(5-18절) 그리고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후반부(19-31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에는 비유적 용법과 회화적 용법이 사용되어 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이 세계적 양상을 띠고 돌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 촉구를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생각해보기	
1	<p>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p> <p>(1) 1-4절: 죄에 돌이켜 회개하려는 백성들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 ①가증한 것을 버리고 ②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③목은 땅을 기경하고 ④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함</p> <p>(2) 5-18절: 북방 민족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북방 민족의 신속한 침공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예언적으로 묘사함</p> <p>(3) 19-31절: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접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의 애가의 내용(대적의 공세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사실과 깨닫지 못하고 재앙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유다의 완악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 본 유다 멸망의 참상을 보도함</p> <p>(4)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로 심판을 유보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회를 주실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다.</p>
핵심 단어	2절. 공평. '정의, 법령, 습관'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라는 의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 통일 찬송가 50장)
통독	예레미야 5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의 심판 이유에 대해 1-4장에서는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다의 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종교적 삶의 변질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철저한 타락을 초래함으로써 도덕적 공백 상태를 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본장은 심판의 당의성을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9절)와 도래할 심판의 성격을 논하고 있는 중반부(10-19절) 그리고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후반부(20-31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죄악을 답습하는 유다</p> <p>(1) 1-19절: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①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 ②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 ③여호와를 인정치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설명함 (원방(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케 하심)</p> <p>(2) 20-31절: 유다 백성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준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함. 언약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고 부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함</p> <p>(3)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p> <p>(4)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핵심 단어	4절. 비천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극빈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 통일 찬송가 9장)
통독	예레미야 6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에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다루고 있다. 본장에 '북으로부터의 적'이 임박했음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 가시적인 평화로 인한 백성들의 자만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본장의 역사적 시점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가속화된 통치 말기임을 알 수 있다. 본장의 내용은 다갈을 바벨론의 침략에 관한 예언이 언급된 전반부(1-8절)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중반부(9-21절), 그리고 심판날의 참상에 대한 예고를 보여 주고 있는 후반부(22-30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완고하고 부패한 유다</p> <p>(1) 1-21절: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로 표현되는 바벨론 군대가 종교적·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유린하는 장면을 매우 생생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조속한 회개를 유도함. 또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그들의 내적 부패와 타락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함</p> <p>(2) 22-30절: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유다 백성들의 공포를 예언적으로 묘사함. 예레미야는 이를 해산을 앞둔 여인과 독자(獨子)를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유하여 묘사함</p> <p>(3) 뜨거운 풀무 불에도 제련되지 않는 은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p>
핵심 단어	3절. 목자들이. 고대에서 통치자들은 목자로 불려졌으며 이들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그들의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